

몬테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6월 7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 말씀 리뷰(Word): 느헤미야 강해(8) -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 느 6:1~16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 공사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140년 동안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속에서 멈춰 있었던 이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 단기간에 완성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의 유다 사람들은 늘 상황과 문제를 먼저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서의 차이가 결국 140년을 52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순종’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적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적인 제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명을 중단시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큰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 이 고백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노 평지’와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자리, 타협하도록 만드는 자리, 지금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순종이 먼저일 때,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성전으로 피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생명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이 대적들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끝까지 순종과 믿음이라는 우선순위를 지켜냈고, 그 결과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느헤미야는 상황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의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노 평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3.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을 끝마칠 때까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말과 소문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 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시선은 무엇입니까?

5. 느헤미야는 믿음을 선택할 때 상황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 나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며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였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과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원제: 돌아서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김영범



1. 주 님 뜻 대로 - 살 기로 했네 -
2. 이 세상 사랑 - 날 몰라 줘도 -
3. 세 상 등 지고 - 십 자가 보네 -



주 님 뜻 대로 - 살 기로 했네 -
이 세상 사랑 - 날 몰라 줘도 -
세 상 등 지고 - 십 자가 보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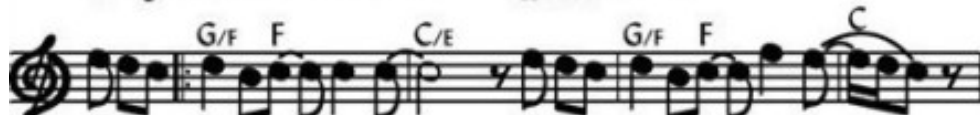
주 님 뜻 대로 - 살 기로 했네 -
이 세상 사랑 - 날 몰라 줘도 -
세 상 등 지고 - 십 자가 보네 -



뒤 돌아서 - - 거 - 않 겠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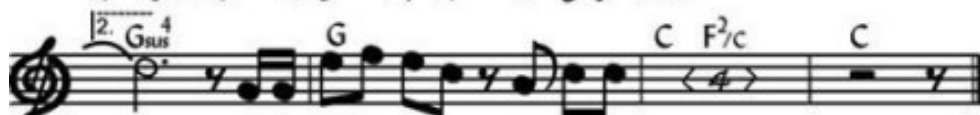
뒤 돌아서 - - 거 - 않 겠네 -



어떠한 시련이 - 와 도 - 수많은 유혹 속 - 에 도 - - -
이해 못 - 하 고 - 우리 를 조롱 하 - 여 도 - - -



선 설 하 신 - 주 님 - 약 속 - 나 불 들 리 라 - - 세 상 이
선 설 하 신 - 주 님 - 약 속 - 만 불 들 리 라



- 결 교 도 아 서 지 않 으 리